

제주해안 불청객 파래 습격 ‘골머리’

협재·하도 등 해수욕장과 해안가 파래로 뒤덮여 청정바다 미관 해치고 악취까지 풍겨 민원 쇄도

제주 도내 해안가마다 구멍갈파래로 뒤덮여 제주의 청정바다 미관이 저해되고 있다.

최근 동부권인 하도·평대를 비롯해 서부권인 협재해수욕장과 한림해안도로를 접한 바닷가는 다량의 파래로 뒤덮여 녹색 빛으로 물들었다.

하얀 백사장과 바위는 제 색을 잃어버렸고, 에메랄드 바닷빛과 상당히 대조됐다. 오랜 시간 햇빛에 노출돼 하얗게 말라버린 파래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특히 뒤덮인 구멍갈파래에선 벌레와 함께 악취가 상당히 심했고, 묻혀있는 해양쓰레기도 자주 발견됐다.

관광객 김모(24)씨는 “제주의 아름다운 바다를 생각하고 왔지만 많은 양의 파래가 있어 미관상 보기 안 좋다”고 말했다.

이처럼 파래가 제주 해안을 습격하면서 오는 7월 1일 해수욕장 개장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바다지킴이 등이 파래를 수거하고 있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모두 처리하기 힘든 상황이다”며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 굴착기 등 장비를 임차해 최대한 빨리 수거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예산을 투입해 파래 수거에 나서고 있지만 많은 곳에서 발생돼 100% 수거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7월 1일까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수욕장 및 연안 등 우선순위를 뒤 수거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수산물과학원에 따르면 파래는 해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의 해수 속 영양분이 과다하게 공

급되거나 수온 상승, 일조량 증가 등으로 활발하게 증식하며 오염된 곳에서 더 잘 자라는 습성이 있다.

구멍갈파래는 조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동부해안을 중심으로 다량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1999년부터 예산을 들여 파래를 수거하고 있다. 구멍갈파래 수거량은 2017년 1812t, 2018년 3300t, 2019년 2405t, 지난해 3400t이다.

강민성기자



22일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해수욕장에 여름철 불청객인 파래가 쌓이자 행정기관이 중장비를 동원해 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팽생이모자반 처리 묘책 찾았나

도, 올해 수거된 약 1만t 비료로 탈바꿈 성공 국립수산물과학원은 한우·전복 사료 연구 착수

제주바다 골칫덩이였던 팽생이모자반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거된 팽생이모자반 대부분을 비료로 사용하면서다.

22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올해 수거된 팽생이모자반은 제주시 9335t, 서귀포시 420t 등 총 9755t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수거된 5185t을 크게 웃도는 양이다.

이로 인해 팽생이모자반 대부분이 몰린 제주시의 경우는 연초부터 처리난을 겪어야 했다. 긴급 예산 약 6700만원을 투입해 수거에 나섰지만 팽생이모자반에 해양쓰레기까지 섞이면서 애를 먹었기 때문이다.

처리난을 해결한 것은 결국 ‘민(民)의 힘’이었다. 각 읍·면·동 자생단체에서 수거 작업에 나섰고, 농가

에서는 수거된 물량을 비료로 사용해 골칫덩이였던 팽생이모자반을 제주에서 사라지게 만든 것이다. 실제 올해 수거된 팽생이모자반이 비료로 탈바꿈한 양은 제주시 9304t, 서귀포시 420t 등 모두 9724t으로, 전체 수거량의 99.6%에 이른다.

제주시 관계자는 “농가에서 비료로 소화하지 못했다면 큰 돈을 들여 폐기물로 처리했을 것”이라며 “향후 소각이나 매립 방식이 아닌 친환경적 처리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팽생이모자반 처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4일 국립수산물과학원은 팽생이모자반을 한우와 전복용 사료로 개발하는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89명 감염

도 “5월부터 급속 확산”

제주지역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 8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역학적 연관성까지 고려할 때 제주에서 주요 변이 바이러스에 추정된 감염자 수는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알파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도내 확진자 중 변이 바이러스 검출자는 총 89명으로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도방역당국이 발표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를 포함하면 89명

중 87명은 알파 변이, 1명은 베타 변이, 1명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인됐다.

이날 감염사례로 추가된 8명의 확진자에게서 모두 알파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추가 확인된 8명 중 4명은 개별 사례에서 발생했으며 나머지 4명은 집단 감염 사례 관련 확진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검출이 확인된 확진자와 역학적 연관성까지 모두 고려할 때 제주에서 주요 변이에 감염된 코로나19 확진자는 211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갑질 혐의 제주대병원 교수 1심 ‘유죄’

지법, 벌금 1000만원 선고 “의료법 위반·폭행 인정돼”

물리치료를 수 차례 폭행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의혹을 받은 제주대학교병원 교수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병원 교수 A(43)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물리치료사 4명에게 수 차례에 걸쳐 발을 밟거나 팔을 꼬집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사건 발생 상황이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컨퍼런스’였기 때문에 의료법에서 규정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폭행’에 이를 만한 불법적 유형력을 행사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 측에서 설명한 컨퍼런스는 의사의 주도 하에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치료사에게 처방을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폭행 혐의 역시 환자와 보호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치료사)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서귀포항서 화물작업중 근로자 2명 추락해 다쳐

21일 오후 1시44분 서귀포항 내 화물선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58)씨가 다발성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B(38)씨도 머리 부위 좌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22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와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서귀포항 3부두에 정박 중인 2000t급 화물선 작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컨테이너를 고정하기 위해 4m 높이에서 크레인외이더 작업을 하던 중 컨테이너가 기울어지며 발생했다.

해경 조사 결과, 와이어 4개 중 1개가 풀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백극타기자 haru@ihalla.com

음주교통사고 뒤 폭력행사 40대 징역 6개월·징유 2년

음주교통사고를 내고도 되레 상대방 차량 탑승자와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1시쯤 서귀포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앞에 있던 차량을 추돌했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아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만취 상태인 것이 드러나자 A씨는 자신이 추돌한 차량의 동승자에 폭력을 휘둘렀다. 송은범기자

21세기 농업은 미생물 농법으로

가이아 바이오 토양 미생물제재 부스트 팜 ⇒ 탄생

사용방법

- 20ℓ(1말)을 100배(100말)희석 1,000평 관주
- 수돗물을 사용시는 하루 지나서 희석

사용효과

- 질병 예방(세균성, 곰팡이성)
- 토양 이끼 제거
- 당도 · 과중 증가, 저장성 증대
- 기형과 감소로 인한 수확량 증대
- 토양을 기름지고 숨쉬는 육토로 바꿈

사용시기

- 거름(퇴비)을 시비한 후 관주
- 영양 생장 · 비대기때 관주
- 엽면시비는 200배로 희석 사용

본 제품을 시제품으로 사용할 농가께서는 연락을 주십시오

010-2633-5349 부영인

공택이 감글 유통상사

(주)포트라 제주지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

진정한 제주축 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마늘 · 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연작장애
토양 소독 살균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지

뿌리혹병의 경감

페르카 효과

달팽이추출물 핵심 성분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PAA
영양분 흡수를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많은 물을 흡수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함

악소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생장을 향상시켜며 식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NAVER D·M 코코리 검색

농가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발작업)

▶ YouTube 석회질소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